발행량 21% ↑… 금리인하 기대감 '채권 강세' 이어간다

금투협, 지난달 채권 발행액 86조
회사채 20조… 전월비 60% 급증
한은 기준금리 0.75% 인하 전망
이달까지 채권금리 하락 이어질 듯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 엔무브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조원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액인 1500억원의 2배를 증액한 3000억원의 회사채를 4일 발행했다. 금리도 좋은 조건이었다.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 대비 3년물은 -20bp(베이시스 포인트·1bp=0.01%포인트), 5년물 -10bp, 10년물 -45bp로 각각 3.004%, 3.161%, 3.386%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파르나스호텔은 당초 목표했던 500억원을 2배로 증액해 총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를 웃도는 341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린 덕분이다. 파르나스호텔은 이번 발행에서 민간 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민평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확보했다.

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액은 86조177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달(71조3713억원)보다 20.75%(14조8062억원) 급증했다. 전년 동기 71조4619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특히, 회사채 발행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19조7078억원으로, 지난 1월(12조2801억원) 대비 60.48%나 증가했다.

기업(발행사) 발행 수요와 큰손들(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도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에 큰 장이 활짝 열린 이유다. 기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앞다퉈 회사채 발행을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은행과 회사채 시장에서 빌린 돈을 갚고, 경기침체를 대비한 비상 실탄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증권사의 채권 담당자는 "높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을 미뤘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회사채 투자심리가 회복되자 기업들은 발행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진 탓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 금리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조이스 장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 대표는 지난 5일 세계경제연구원이 '2025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 트럼프 2기 출범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최로 연 웨비나에서 "미국 관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성장 우려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0.75% 포인트(p)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하락세는 3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GBI 편입으로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 개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으로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의 국채 자금이 유입되면 0.2~0.6%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DMA계좌 이용 불법공매도 가능성 높아"

〈직접주문전용선〉

공매도 재개 앞두고 투자자들 불신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 마련하고
처벌강화 등 법적제재 수위 높여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 공매도 감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된다. 공매도 가능 종목도 금지 전 350개에서 2700여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또한 공매도 재개 이후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공매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총수익교환(TRS) 거래 등을 활용해 사실상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롱숏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한국 주식시장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거래소는 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소재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IB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왼쪽부터)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KRX, 유가증권 우수 IB '미래에셋증권' 선정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 유가증권시장 우수 기업금융(IB)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IB의 적극적인 신규 상장 기업 발굴 유도 및 충실한 기업실사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우수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기여도와 IPO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IB업계의 노력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증시 입성 등 성과가 있었다"며 "거래소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요예측 과열을 정상화하고,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서학개미, 美 레버리지 ETF 최대 50% 손실

국내 투자자 매수 상위 20개 종목
최근 한달간 10개 종목 손실 기록

서학개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통상 행보에 대규모 손실의 늪에 빠졌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들은 최근 한 달간 손실률이 20~50%에 달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상위 20개 미국 주식 종목의 순매수액 총합은 31억2008만달러(약 4조5072억원)에 달했다.

국내 한 주요 증권사의 개인 고객 빅데이터 자료로 이들 20개 종목의 1개월간 '계좌(고객) 평균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절반인 10개 종목이 손실을 기록했다.

계좌 평균 수익률은 특정 기간 내 해당 종목을 거래한 증권사 고객들이 거둔 평균적인 수익률을 뜻한다.

순매수액 1위인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 2배 ETF'는 원화 환산 기준으로 한 달간 계좌 평균 수익률이 -30.69%를 기록했다. 이 ETF는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기법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변동폭이 커 투자 난도가 높다. 이 종목의 한 달간 국내 순매수액은 7억8500만 달러(1조1355억원)에 이른다.

손실이 가장 컸던 종목은 다른 레버리지 ETF인 '2배 이더리움 ETF'로 계좌 평균 수익률이 -47.88%로 나타났다.

그 외 '그래닛셰어즈 2배 코인 ETF'(-39.95%), '일드맥스 코인 옵션 인컴 스트레티지 ETF'(-30.96%), '일드맥스 MSTR 옵션 인컴 전략 ETF'(-28.42%), '디렉션 반도체 3배 ETF'(-24.40%), '프로셰어즈 -2배 블룸버그 천연가스 ETF'(-21.87%) 등도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 ETF들은 모두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2~3배로 증폭하거나 암호화폐처럼 애초 변동성이 극히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ETF'들로, 현재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출시·유통할 수 없는 상품들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주가 띄워 차익실현… 불공정거래 적발

금융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조치 의결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 처럼 홍보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 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